

보도

‘패기와 전문성 그리고 다함께’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조 만들 것”

18대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 송혜경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제18대 노동조합(노조) 임원 선거결과 기호1번 송혜경(국제-감사행정원 과장) 위원장 후보와 김용은(서울-중앙박물관 계장) 수석 부위원장 후보가 총 423표(투표율 97.9%) 중 243표(57.6%)를 득표해 당선됐다. 12년 만의 경선이었던 만큼 선거과정은 치열했고, 또 그 결과는 27년 노조 역사상 최초의 여성 노조 위원장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직원을 대표할 송 당선자로부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송혜경 당선자는 “제18대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어, 무척 기쁘고 자랑스롭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아무래도 교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 위원장으로서 추진해 나가야할 굵직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호2번으로 나선 17대 노조 장백기 위원장이 2년 전 투표율 86%, 찬성률 91%로 당선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노조 조합원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송 당선자는 “그동안 장백기 전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조합을 이끌어 온 선배들의 리더십과 수많은 업적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며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환경 역시 급변했고 조합원들의 관심과 대학 내에서의 조합원의 위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내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 당선자는 2차 선거홍보물을 통해 ‘노조 운영계획’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1인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원과 함께 만드는 노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송 당선자가 출마를 결심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임원 몇 사람의 의견이나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서울, 국제, 광릉캠퍼스 각자의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조합원 모두가 노동조합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꿈꿔왔다. 대학당국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발로 뛰고 함께하는 그런 노동조합을, 15대 노조 사무국장하면서부터 마음속에 그려왔던 만큼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송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대학 행·재정 발전계획안에 따라, 직원 채용이 최소화되고, 계약직 직원을 감축하고 있다. 노동강도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사실 대학 행·재정 발전계획안이란 단어가 조금 거슬린다. 발전계획안이라기 보다는 그간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수습 계획안이 아닐까 싶다. 현재 그 피해가 조합원과 구성원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최소화되었을 뿐 아니라 정규직원의 채용 또한 적정인력 산출 및 총원이라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타 대학에 비해 직원수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 대학에 비해 부서, 기관, 기구, 단과대학, 학과 또한 많다. 따라서 대학행정 기구 개편 뿐 아니라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간의 대대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각 구성원간의 이기적인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학교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때로는 희



〈송혜경 위원장 당선자 주요 공약〉

공약	내용
전 직종 65세 동일 정년	달라진 연금 환경, 일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의지에 따라 정년 65세 정취.
사회적 합의에 따른 최소 임금 인상률 확보	최소 임금인상을 제시. 노동 강도 상승에 걸맞은 수당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연차 수당의 제도입. 주어진 업무 외의 각종 노동 수당 등 다양한 제도 마련. 사회연금 개악의 현실화로 수령액 불이익 발생시 별도 퇴직연금 등의 적극적인 도입.
재직은 물론 퇴직 후 복지제도도 마련	명예퇴직과 관련한 재원 사수. 육아휴직 현실화. 포상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 퇴직자 복지제도 마련.
나부터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실패한 다면평가 혁신. 단계적인 부서장 평가를 통해 책임 행정 구현.
전문성에 바탕한 인사제도	조합원의 역량과 의사가 반영된 인사제도 확립. 사람을 키우는 인사제도 확립. 건강한 인력구조 확보. 정년 연장 추진에 따라 보직 체계도 변화
최고의 행정가를 키우는 교육	업무 범위별로 그룹화된 교육 프로그램 확보. 직원 연구년, 해외직무연수, 어학을 포함한 개인역량 개발 등 교육관련 예산 확보.

생하는 자제로 때로는 강력한 결단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 속에서 인력문제와 노동강도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직원 임금이 장기간 동결수준이다. 앞으로 풀어나갈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록금에 대해서는 등록금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인상이나 동결이나 등에 대한 의견은 아직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난을 방치한 대학당국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선안 도출요구는 시급하다.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재정난과 위기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학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선택과 집중의 예산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

-최초의 여성 노조 위원장이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가 겪는 어려움, 대표적으로 육아와 직장의 병행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더 높은 관심을 보이실 것으로 기대가 된다.

“17년간 경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여성노동자다.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나마 육아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직장맘’보다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정착돼가긴 하지만, 대체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른 구성원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육아휴직제도 뿐 아니라 보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보육을 책임지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할 필요도 있지만, 예산문제와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모든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

-현재 다 캠퍼스 체제에서 국제캠퍼스 직원과 서울캠퍼스 직원, 광릉캠퍼스 직원 간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캠퍼스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한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캠퍼스 간 상이한 문화와 인식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동안 김용은 수석부위원장 당선자와 약속했다. 매주 10명의 조합원을 만나고, 직접 근무부서를 찾아가겠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간의 불통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적절한 인사제도의 건의, 지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대학에 건의해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끝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말해 달라.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성숙한 조직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저 역시 많은 성장이 있었다. 모두 함께 만들어나갈 차세대 노동조합의 키워드, ‘패기와 전문성 그리고 다함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을 담아 더욱 성숙한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또한 조합원의 역량이 온전히 반영되는 함께하는 노동조합의 모습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겠다.”

서울캠 의회, 법적 정당성 있다? 없다?

서울캠 교수의회 정당성 논란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서울캠퍼스 교수의회(서울캠 의회)가 신입의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의회는 ‘서울캠 의회는 교수의회와 별도 단체이고, 서울지회를 포함한 3개 지회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캠 의회’에서 교수의회와 재정에산원에 요구한 서울지회 소속 교수의 회비 이관요청 역시 법적 정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불가하다’고 전했다.

교수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지난 17일 전체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이메일에는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설립은 전체 교수 의사 취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설립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학교정관, 학칙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위반되어 불가하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교수의회 동석호 의장은 “서울캠 의회라는 것도 몇몇 교수의 주장일 뿐이고, 서명지에 새로운 교수의회를 만든다는 내용은 없다”며 “교수의회와 별도인 서울캠 의회를 동등한 것처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지난 18일 서울캠 의회도 메일을 발송해 교수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캠 의회는 ‘모든 과정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설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다 마쳤다’며 ‘교수의회 메일에 첨부한 법무법인 답변서에도 서울캠 의회의 독립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진행 중인 서울캠 의회 의장 선거에 대하여 서신을 보내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의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기구이다. 따라서 서울캠 교수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설립과 탈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존 교수의회 회칙은 3개 지회 체제를 전제로 구성되었기에 서울캠 의회가 탈퇴한 순간 회칙으로서의 당위성을 상실했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임창차가 분명한 가운데, 교수의회와 서울캠 의회 각각 총장 선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캠 의회는 신입 의장선거에 후보로 허경호(언론정보학) 교수와 유원준(사학) 교수가 각각 출마한 상태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1면에서 이어짐

다만 학생회 선거세칙 5장 후보추천 및 등록 23조 2항 ‘등록마감시간 이후에는 일체의 등록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출입할 수 없다’는 항목을 두고, 사람은 출입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서류를 전달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려 향후 세칙적용과 관련한 문제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중선관위는 ‘Klass Up’ 선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긴급회의는 19일 오전 2시 경에 종료됐고, 양 선본과 중선관위는 ‘경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 만에 경선이 성사된 다음날에도, 경고조치가 2회 나왔다. 중선관위는 18일 긴급회의에서 ‘Klass Up’선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제기서가 효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자보 형식으로 여전히 붙어있었

기 때문에 이는 중선관위를 모욕하는 행위로 판단해 ‘타 후보나 선본, 중선관위에게 협박, 욕설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의 경우 경고한다는 조항에 따라 1회 경고 조치했다.

또한 18일 오전 8시 15분 경 ‘Klass Up’ 측의 이의제기서가 대자보 형식으로 붙어있는 것에 대해 선관위장이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18일 8시 30분 경 또 이의제기서를 부착해 시정조치에 불응해 문제가 됐다. 중선관위는 이 같은 행동을 권고 및 시정, 주의를 받은 후에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안은 징계 즉시 시정조치 하고 시간을 요하는 경우는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조치해야 한다. 시정조치 아니하면 해당후보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다시 한 번 경고 조치했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후보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1주일 남은 선거기간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C] 2014-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어학성적 · 자격증 취득, 수상, 봉사한 학생들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어학성적 · 자격증 취득, 수상, 봉사한 학생들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			
1.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4. 12. 1(월) ~ 12. 19(금) [3주간]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타정학수혜자에게도 장학 지급이 가능하며, 등록금 초과 장학지급 가능) - 장학금: 20만원~100만원 2. 모자이크 장학이란? 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분야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 역량	국제단위 3위 이상	500,000	
	전국단위 3위 이상	300,000	
	시·도단위 3위 이상	150,000	
	교내 경진대회 최우수상	100,000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SCIE급 학술지	400,000	
사회 봉사 역량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해외자원봉사	50,000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10,000	
	한월자(2명)	10,000	
	토익 900점이상 / 토목(11) 110점이상	200,000	
	토익 800점이상 / 토목(65T) 100점이상	100,000	
국제화 역량	JLPT N급 .JPT 715 이상	200,000	
	JLPT N2급 .JPT 540 이상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DELF C1 - C2	200,000	
	DELF B2	100,000	
	TORFL-2	200,000	
	TORFL-1	100,000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DELE Diploma Superior(고급)/FLEX 듣기/읽기 901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200,000	
	DELE Diploma Intermedio(중급) / FLEX 듣기/읽기 776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한국어문화 1급		200,000	
한국어문화 2급		100,000	

※ 기타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재단, 장학팀) 및 단과대학 게시판, 개인 이메일 참조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2014-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영역 조회 > 신청 버튼 클릭, 완료(학생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대체)
(* 학생들은 평소 예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영역입력 및 증명서류 단과대학 제출)을 하여, 단과대학의 인정 처리를 받음.)
4. 관련문의: janghak@khu.ac.kr / http://janghak.khu.ac.kr, 961-0045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